스즈키보 - 호텔용 제품을 호텔과 직접 거래

스즈키보는 호텔용 2차 제품 사업을 새로 시작하였다. 생산하는 상품은 타월, 베드 쉬트, 커버 등으로 호텔과 직접 거래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거래가 정해진 고객도 있으며, 2006년 5월부터 상품을 직접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호텔용 섬유 제품은 대부분의 경우 리넨 서플라이(linen supply : 호텔 전용 세탁소) 업자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이번 케이스는 호텔과 직접 거래하고 있다. 호텔의 요망 사항을 반영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생각으로 세탁하기가 쉽다든가, 세탁으로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강도보다도, 숙박객이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소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폴리에스터、면 혼방의 24수로 뽑는 것이 아니라, 면 100%의 40수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실크、면이나 리넨 혼방과 같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생각으로 고치(高知) 공장에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스즈키보는 상류뿐만 아니라 하류에까지도 소재 개발을 넓힘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낸다는 생각이며, 2차 제품 사업의 개시는 그러한 방향성의 하나이다. ♣